

“어려운 이웃 위한 봉사는 계속돼야죠”

부산불교연합회 ‘민들레 밥집’ 인수... ‘민들레 지비원’ 개명 새도약 준비

큰 상처가 깊고 지나간 자리는 돌아오기 쉬운 법이다. 상처의 흉터가 보이던 아픔이 기억나고 슬픔의 감정으로 힘이 빠진다. 봉사라는 좋은 일에 자신의 마음을 붓고 시간을 투자했지만 실망만 안겨 준 사건이 있었다.

올해 10월 경 부산 민들레 밥집에서 활동하던 두타 스님의 이중생활이 언론에 폭로됐다. 많은 봉사자들과 후원자들이 실의에 빠졌으며 민들레 노인무료급식소는 존폐위기를 겪었다. 10월 16일 부산불교연합회(회장 대성)는 민들레 밥집을 급히 인수했다.

어르신들을 위한 급식을 지속적으로 펼치기 위해서였다. 어르신들이 그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겪어선 안 된다는 단호한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상처를 딛고

일어서 소망을 품은 희망의 현장으로 되살아 난 것이다. 12월 5일 새롭게 출발해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부산 사지동 민들레 자비원을 찾았다.

봉사자들의 활기찬 웃음과 정성은 겨울 추위 속에서도 어르신들의 표정을 밝게 바꾸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천천히 식사하시고 도시락도 나중에 챙겨주세요. 국 못 드시는 할머니 자-자 이거 천천히 받으세요.” 무료급식소를 찾은 어르신들은 봉사자들의 손을 잡으며 감사의 인사를 잊지 않았다.

“두타 스님의 일로 인해 우리가 동요하고 봉사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식사를 챙겨드리며 어르신들의 얼굴을 생각하고 나오는 거죠. 다른 이유는 필요 없잖아요.” 2006년 2월부터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황귀자(46세·사직동)씨의 말이다. “어르신들이 몸이 약해서 행주, 그릇, 식기 일체를 매일 삶고 청결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침저녁 도시락을 싸드리고 거동 못하는 어르신들에게는 배달을 합니다.” 오직 소외받는 이웃만을 생각한 봉사자들의 순수한 마음이 일궈낸 결실이다.

현재 민들레 밥집은 (사)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직영 민들레 자비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도약을 준비 중이다. 지난 12월 10일 부산불교연합회는 후원자 모집 및 무료급식소 운영비를 위해 일일 찾집을 열고 발대식도 개최했다. 이날 민들레 자비원 봉사자 50여명을 격려하는 감사장을 수여하고 참가자들에게 많은 동참을 권유했다.

앞으로 민들레 자비원은 봉사의 손길을 늘려 방학 기간 동안 급식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 및 어린이들을 위한 급식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나쁜 어른으로 줄어드는 후원금을 모금하고 정기적인 후원자 발굴 및 봉사자들을 모집할 계획이다.

현재 후원금은 두타 스님 사건 이후 약 400만원에서 100만여 원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재정의 투명성을 강조하여 부산불교연합회는 매달 두 차례씩 민들레 자비원 다음 공식카페(cafe.daum.net/lovedandelion)에 지출 내역 및 후원금을 공개하고 있다. 부산불교연합회는 정기적으로 모금 운동을 해 줄 후원자·봉사자, 쌀 및 부식거리를 지원해 줄 동참자를 찾고 있다. (051)867-0501



민들레 자비원을 찾는 어르신도 봉사자들도 한사를 놓고 미래를 꿈꾸고 있다.

하성미 기자

‘통일의 염원’ 담은 쌀 北으로

광주전남지역 시민·종교단체 쌀 200톤 북녘동포에 전달

구래 화엄사를 비롯한 광주전남 시민단체 및 종교단체가 ‘통일 농업 실현을 위한 광주전남 지역 통일쌀 환송식’을 5·18광장 앞 충장로에서 개최했다.

12월 3일 열린 이날 환송식에서는 지난 1년간 광주전남지역에서 ‘통일 쌀 한 평 가꾸기 운동’을 통해 모은 쌀 200여 톤을 서울과 개성을 통해 북한으로 전달했다.



광주 8.15 광장에서 통일 쌀 환송식을 열었다.

특히 사찰 내 경작부지 2만여 평에서 생산된 쌀의 전부를 전달한 화엄사 주지 종삼 스님은 “‘통일 쌀 한 평 가꾸기 운동’은 쌀 개방과 FTA 등으로 피폐된 농촌에 새로운 희망을 보여줌과 동시에 북녘동포에게는 공존공영의 메시지가 되어 민족분단의 아픔을 해소하고 평화정착을 이루어 나갈 큰 걸음이 될 것”이라며 “이렇게 의미 있는 운동에 화엄사가 부처님의 자비심수 정신으로 동참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축사했다.

이에 앞서 김경길 삼일공동대표(통일 쌀 운동본부)는 개회사를 통해 “통일 쌀 한 평 가꾸기 운동이 농촌을 살리고 통일을 이루는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통일 쌀 가꾸기 사업’은 국민의 성금을 모아 통일 쌀 경작단지를 조성하고 그 경작지에서 생산된 쌀을 북녘동포들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우리농촌과 북녘동포도 돕는 통일 사업이다.

양행선 호남지사장

부산불교인재개발원 新강좌 개최

청년지도자양성과정 등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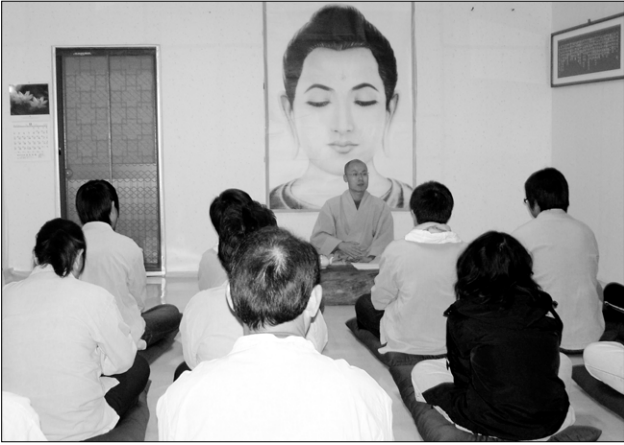
부산불교신도회(회장 공병수) 부설 부산불교인재개발원이 인재봉사를 위한 새로운 강좌들을 연다.

먼저 ‘제1기 Lotus(蓮花)불교대학’은 국제 불교교류 및 포교방법으로 불교의 세계화를 위해 앞장설 인재를 위한 교육의 장이다. 교육기간은 2008년 3월부터 1년 과정이며 매주 목, 금 오후 7시에 수업한다. 과목은 불교교리, 국제 불교, 비교종교, 포교론, 복지 등이다. 입학 자격은 불교신행학교 및 입문자 과정을 수료한 불자이다.

청년지도자양성과정 등 마련 등이다. 각 사찰의 청년 임원 및 청년 불자 대학생들은 입학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교계 대강객들을 직접 만나 공부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된다. ‘제1기 부산불교전문강당’은 조계종 승가대학원장 지인 스님을 학장으로 침불사 회주 통광 스님, 前 조계종 교육원장 무비 스님, 화엄정사 회주 각성 스님 등 소문난 강객들을 강사로 초청한다. 교육기간은 내년 3월부터 2년 과정이며 매주 수, 목 오후 6시 30분에 수업한다. 교과목은 <초발심자경문> <도서> <절요> <전등록> <대승기신론> <설대승론> <아함경> <금강경> <법화경> 등이다. 경전, 논전, 어록에 대해 심도 깊게 공부할 스님과 포교사, 재가 지도자등만 입학이 가능하다. 전강좌의 접수 기간은 내년 1월까지이다. (051)853-8539

하성미 기자



정읍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 받고 있는 청소년들이 부모와 함께 금강선원에서 사찰문화체험을 했다.

정읍 보호관찰소, 금강선원서 템플스테이 개최

청소년들 ‘참회와 성찰의 시간’

순간의 실수로 보호관찰 받고 있는 청소년들이 템플스테이를 통해 참회의 시간을 가졌다.

전북 정읍 보호관찰소는 12월 1일 합천 참선마을 금강선원(주지 초중)에서 사찰 문화체험을 진행했다.

부모님과 청소년이 함께 참여한 이번 템플스테이는 금강선원에서 직접 만든 빵인자를 마시며 스님께 마음 다스리는 법을 배웠다.

함께 모닥불을 피워놓고 고구마를 구워먹으며 가족 간의 허물없는 대화를 통해 마음을 나

누며 벽을 없애는 계기도 마련했다.

새벽 예불 후에는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108배를 통해 그동안의 잘못을 참회하고 스님께 배운 참선을 하며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문화체험은 인근 해인사를 참배하는 것으로 모든 일정을 마쳤다.

템플스테이에 참여한 한 학생은 “이번 산사체험을 통해 잘못을 깨닫고 자신의 참모습을 보고 회망을 찾을 수 있었다”며 스님의 두 손을 꼭 잡았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순천 원각사 전통문화 체험행사 큰 호응

금강선원서 사찰 문화체험

순천 송광사 광주포교당 원각사가 다문화 가족을 위한 다도, 민요 등 한국 전통문화 체험행사를 진행해 다문화 가족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다문화 가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11월 4일~12월 8일 5차례에 걸쳐 진행된 이번 행사는 각 나라별로 다양한 이주민 가족이 한곳에 모여 한국의 따뜻한 정서와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데 일차적인 목표를 뒀

다. 이와 함께 한국의 정서문화를 이해함으로써 안정적 생활기반을 마련하고 서로 다른 다양한 문화를 통해 사회 문화적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행사이다.

연속 원각(명원다도문화원, 광주대학교 겸임교수), 김장규(前 전남도립국악단 단원, 창원전국국악경연대회 대상)씨가 강사로 나서며, 아시아문화교류재단 사무국장 바스 무렵의 통역으로 진행된다.

양행선 호남지사장

청주청원불교연합회 결산 총회

청주청원불교연합회(회장 각의)는 12월 3일 청주 관음사에서 2007년 결산 총회를 개최했다. 사업 주지 스님, 신행단체 회장 등 50명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 수입 1억498만여 원, 지출 1억285만여 원을 결산 승인했다.

청주청원불교연합회는 결산 총회를 통해 한해 행사를 점검하고, 청수사·충북불교대학총동문회 등에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외에도 불교신협 활성화를 위해 주지스님과 신도들의 1구좌 개설운동을 결의했다. 2008년 신년교례회는 주관단체를 선정해 여법한 준비를 당부했다. 해철 충청지사장

괴산 무심사 미륵대불 점안식 봉행

충북교구 종도들, 불사 위한 성금

괴산 무심사주지 지근은 12월 2일 미륵대불 점안 및 지장전·용궁전·요사채 낙성대법회를 봉행했다.



무심사 미륵대불 점안 및 지장전 낙성대법회에 참석한 중정 해초 스님(왼쪽에서 네 번째)들이 티셔츠를 커팅하고 있다.

태고종 중정 해초, 중앙종회 부의장 원봉, 충북종무원장 원해 스님, 임각수 괴산군수, 홍광식 대한노인회 사무총장(서울시의원), 김상석 국제복지연맹총재, 반기복 사회복지법인 시니어랜드 관리이사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동참했다.

무심사는 동자승 6명이 수행하며 학교를 다니고 있고 노인복지법인 불사를 진행하는 등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전전후후 포교도량으로 불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찰이다.

이날 충북 최고의 가람으로 거듭나기 위해 불사를 계속하고 있는 무심사에 태고종 충북교구 종도들의

성금이 전달됐다.

중정 해초 스님은 “불상의 영험은 중생의 정성으로 이루어진다”며 “소원성취 도량으로 거듭나기 위해 무심사 신도들의 기도정진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043)833-1461

해철 충청지사장

옥천 스님·불자 100여명 불우이웃 돕기 탁발정진

충북 옥천군내 스님과 불자들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탁발정진을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옥천불교사암연합회(회장 해철)는 12월 10일 오후 3시부터 연합회 소속 스님 16명과 티베트스님 6명, 신도회 임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옥천읍내에서 탁발 정진했다. 옥천군청에서 군정발전 지원문

을 낭독한 뒤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겨울을 함께하도록 국민 모두가 동참하자는 호소문도 발표했다.

옥천경찰서와 옥천역, 옥천재래시장, 능협옥천군지부 등에서 발신을 들고, 탁발로 모은 성금과 각 신도회의 자비시금 등을 합쳐 군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탁발정진에는 옥천대성사와 문화교류를 맺은 티베트스

님 6명이 동참해 티베트 전통악기를 연주하는 등 볼거리를 제공해 군민들의 동참을 유도할 방침이다.

해철 스님은 “연합회 소속 스님과 신도들이 최근 연료비 인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작은 정성도 전달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불우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해철 충청지사장

현대불교 후원 : (국번) 038-25-0008-365 예금주: 에이치비뱅크

대성 스님 “상주물, 뇌물 아니다”

기자회견서 범어사 입장 표명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은 “대성 스님 고소사건 언론보도에 대한 범어사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12월 1일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성 스님은 11월 12일 해운회사 회장 권영환(일명 해담)에 의해 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은 고소인에게 범어사 경내에 있는 찾집을 직접 경영하게 해주고 또한 재무 스님과 협의하여 범어사내에 한자리를 주겠다는 말을 믿

고 3회에 걸쳐 상당의 고가 그림과 도예품을 제공했다”며 “이후 피고소인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등 거짓말을 하고 있어 고소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대성 스님은 “있지도 않은 찾집 운영권을 어떻게 주겠다고 약속할 수 있었겠냐”며 “범어사에 들어온 상주물들은 나 개인의 것이 아닌데 뇌물처럼 인위되어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대성 스님은 “상주물을 받은 것을 언론에서는 뇌물을 받은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며 정보보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성미 기자

공군사관생도 수계법회 봉행

1학년 생도 등 59명 참여

공군사관학교 성무호국사(주지 동광)는 계사 도공 스님(법주사 주지), 무상 스님(법주사 부주지)을 모시고 12월 5일 성무호국사 법당에서 제59기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수계법회에는 1학년 생도 42명, 조종사 12명, 사병 및 불자 5명이 계를 받고 불자의 삶에 다짐했다. 미래 공군을 이끌 불자 장교 양성의 중요성을 반영

하듯, 범주사와 더불어 금불회, 성불회, 보문회, 충북예비역불자회, 예불회, 석불회 등 청주청원지역 사찰과 신행단체들이 자리를 함께해 축하했다.

성무호국사 주지 동광 스님은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의 좋은 날 부처님 미소를 뽐내고자 하는 생도들의 수계식을 봉행했다”며 “정식 불자로 첫발을 내딛는 불자 생도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관심을 다짐했다. 미래 공군을 이끌 불자 장교 양성의 중요성을 반영

해철 충청지사장